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3. 5.(목) 12:00
(지 면) 2026. 3. 6.(금) 조 간

대형산불 위험 높은 봄,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!

- 산불 발생 및 피해 3~4월에 집중, 산불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아
-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, 산불 발견 즉시 119·112·산림관서로 신고 및 대피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며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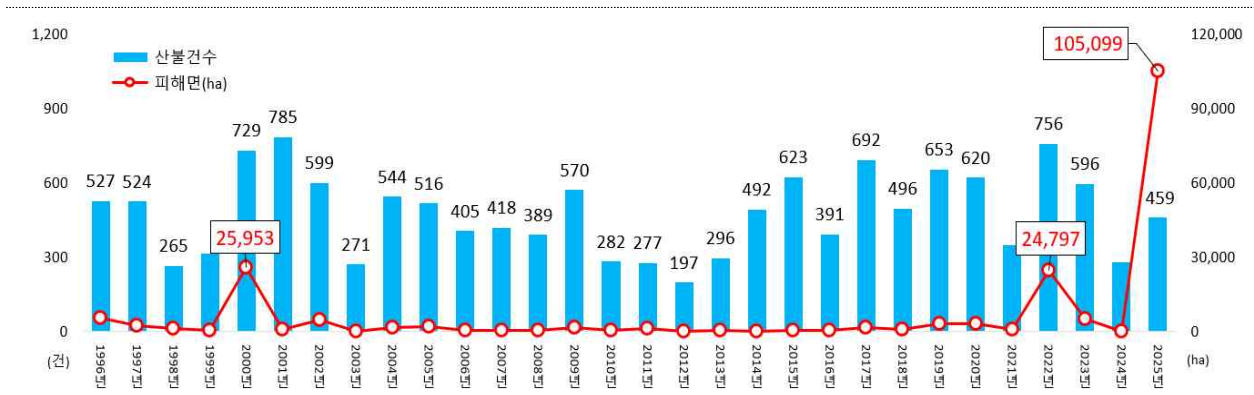
※ 올해(1.1.~3.3.) 산불은 162건 발생, 지난해 동 기간(121건) 대비 1.3배 증가

□ 지난 30년(1996~2025년)간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하여 6,458ha의 산림을 불태웠으며,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100ha 이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이다.

○ 특히, 2025년 한 해*에만 산불로 인해 105,099ha의 산림이 소실됐는데, 이는 과거(1996~2024년) 산불 피해 면적을 모두 합친 것(88,628ha)보다 더 넓은 수치이다.

* '25.3.22.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로 인해, 하루 동안 역대 최대인 100,534ha의 산림 소실 (경북 의성 안계면 52,707ha/안평면 46,575ha/금성면 134ha, 울산 울주 온양면 1,117ha)

< 최근 30년(1996~2025년)간 연도별 산불 발생 현황 > (단위: 건, ha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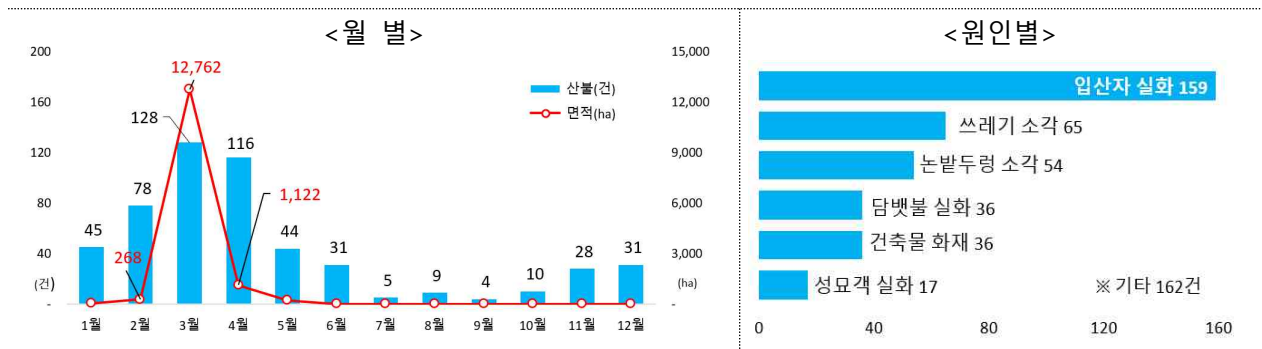


[제공: 산림청]

□ 최근 10년(2016~2025년)간 통계를 살펴보면, 산불 발생 건수는 3월과 4월에 가장 많았으며,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%(12,762ha)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59건(30%)으로 가장 많았고, 쓰레기 소각 65건(12%), 논밭두렁 소각 54건(10%), 담뱃불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36건(7%)으로 그 뒤를 이었다.

< 최근 10년(2016~2025년)간 월별 산불 발생 현황 > (단위: 건, ha)



[제공: 산림청]

□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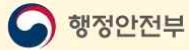
-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를 가져가지 않고,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.
-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·밭두렁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는다.
- 산행 중에는 물론, 산 인근 도로를 운전할 때에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이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.
-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소방(119), 경찰(112),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, 사전에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한다.

□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“올해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산불이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”라며,

- “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 괄>	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장 직무대리	송정호 (044-205-4505)
		담당자	주무관	오영남 (044-205-4519)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안길주 (044-205-6170)
		담당자	사무관	고용석 (044-205-6171)
담당 부서	산림청 산불방지과	책임자	과 장	금시훈 (042-481-425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철 (042-481-4255)





산불 예방

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

영농부산물, 쓰레기 등
불법 소각 금지



취사·야영·실화 등으로
산불 시 처벌

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
200만 원 이하 과태료



산행 시 라이터, 버너 등
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



입산통제구역, 등산로
폐쇄 구간 출입금지

국민행동요령

내 지역이 국립공원 또는 산림과 인접해 있다면, 초고속 산불에 이렇게 대피하세요!

Ready · 준비



산불조심기간 동안 Ready!

- ☑ 내 집 근처 발화요인(나뭇잎, 솔방울, 수풀 등) 사전 제거 하기
- ☑ 산불 발생시 연무, 방향감각 상실 등으로 대피로 파악이 곤란한 상황 고려, 평소 대피장소 및 이동방법(대피로) 숙지
- ☑ 우리 마을 “함께 대피” 이웃 알아두기
- ☑ 산불 예방 및 대피 홍보 영상 시청(주변 어르신에게 알려주기)
- ☑ 산불 예방 및 대피 훈련에 적극 참여하기

우리 지역 인근에 산불이 발생하였다면 Ready!

- ☑ 비상가방 준비 하기
N95 마스크, 손전등 및 예비 배터리, 휴대용 라디오(휴대폰 불통시 긴급 재난방송 수신), 비상 식량·식수, 개인 약품*과 구급함(만성질환, 노약자) 등
* 약을 가지러 되돌아가거나, 준비로 대피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잘 챙기기
- ☑ 대피명령 발생 가능성 인지
- ☑ 우리 마을 “함께 대피” 이웃 연락하기

Set · 실행대기



- ☑ 사전대피 권고가 되었다면 적극 동참하기
• 우리 마을 주변에 소나무 등 침엽수가 많다면 사전대피
• 마을 진입로가 1개여서 산불로 고립될 우려가 있다면 사전대피
- ☑ 긴급재난문자, 안내방송 잘 확인하기
- ☑ 고령자, 거동불편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적극 사전대피하기



Go · 즉시실행



- ☑ “즉시 대피” (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일단 피하기)
• 불길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으므로 간단한 짐만 챙겨 신속히 이동
- ☑ 대피 중 집에 두고 온 물건 때문에 되돌아 가지 않기
- ☑ 불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,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 이용하기
- ☑ 안내받은 대피소로 이동 중 불길이 보인다면 대피소로 가지 않기
- ☑ 특정 대피소가 아닌 ‘안전지역’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, 주변에 산림이 적은 넓은 개활지로 이동하고 계곡부는 피하기
- ☑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하기